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이사회의 기업문화 감독」 외 3분기 동향

2024.09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10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23
IV. FAQ	25
V. 그룹·센터 소식	30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기업문화 감독

2024년 7월, Board Practices Quarterly, 「Board oversight of culture」

- 이사회는 현행 관행과 프로세스가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문화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3.12월, 이사회가 어떻게 기업 문화를 감독하는 지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함
 - 기업거버넌스 협회 회원사 77개 글로벌 상장기업의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법무, 이사회 지원, 거버넌스 관리, 주주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관리직
- 기업문화 감독 권한의 주체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기업문화 감독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음(48%), 보수위원회(24%), 이사회(21%), 임원후보추천위원회/거버넌스위원회(7%), 모름(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년 서베이 결과에서는 75%가 이사회를 '기업문화 리스크 책임'의 주체로 지목한 바와 비교하여 인식의 변화가 발생함
- '기업문화 리스크 책임자'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최고인사책임자(78%), 최고경영자(45%), 최고법률책임자/법무총괄(22%),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18%), 최고다양성책임자(11%),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8년 서베이 결과에서는 최고인사책임자(75%)와 최고법률책임자/법무총괄(23%)이 가장 보편적인 기업문화 리스크 책임자로 지목된 결과와 비교하여 인식의 변화가 발생함**
 - ** '18년 서베이 응답 선택지에 '최고경영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글로벌 이사회는 기업문화 안건을 주로 '필요시' 혹은 '최소 연1회' 논의하며 이는 조직 내에서 기업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는 추세를 시사함



원문 다운로드

이사회 내 기업문화 안건 논의 빈도	
필요시	61%
매년	21%
반기별	8%
분기별	3%
모든 이사회 회의 시	2%
논의하지 않음	11%
기타	2%

CEO 승계계획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024년 Summer, NACD's 'Directorship magazine, 'Calculating the cost of CEO succession planning.'

- CEO 평균 재임기간의 단축 및 보수에 대한 감시 강화에 따라 CEO 승계계획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됨
- S&P 500 기업의 CEO 교체사례(45건, '22.01~'24.01)를 바탕으로 차기 CEO의 내외부 영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함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CEO 보수 관련 세부정보(기본급, 연간 성과 인센티브, 주식기준보상 반영)

- 서베이 결과

1.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CEO 비율

- 약 76%는 내부승진을 통한 CEO 교체였음
- 내부승진 CEO 최다 출신 직책은 최고운영책임자(COO, 55%), CFO(17%)
- 외부영입 CEO 최다 출신 직책은 타기업의 CEO(44%), 사업부서 책임자(50%)

2.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CEO 보수

- 내부승진 CEO의 보수는 외부영입 CEO 대비 84%
- 외부영입 CEO 보수는 전임 CEO와 거의 동일

3.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CEO 일회성 보상금액

- 내부승진 CEO의 일회성 보상금액은 외부영입 CEO 대비 80%
- 외부영입 CEO는 일회성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55% 더 높음

- 내부승진 CEO 평균 재임기간은 15년으로 이는 적응 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인수인계를 가능하도록 함
- 내부승진의 이점은 업무 친숙성, 문화 적응수준, 이사회 역학관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임
- 조직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위기에 처하거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외부영입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원문 다운로드

M&A 거래에서 사이버보안의 역할

2024년 3월, The Wall Street Journal, 「Beyond Numbers: Critical Role of Cybersecurity in M&A Deals」



-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M&A 거래의 모든 단계에 강력한 사이버보안 조치를 통합하는 것은 거래의 성공과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임
- 효과적인 M&A 거래는 단순히 이질적인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보안 전략, 프로세스, 보안 문화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음
- M&A 시 사이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리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사이버 위험 관련 실사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기업 위험 평가 전략 및 표준 지침 개발

- 일관된 접근 방식은 임시적이고 개별적인 거래 계획을 줄이고, 거래 속도를 가속화하며, 전반적인 사이버 실사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도구: 조직 특성에 맞춘 동인, 주요 일정 및 마일스톤 설정, 분야별 전문가 식별
 - 템플릿: 실사 접근 방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참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보 요청서, 샘플 질문지, 프로젝트 관리 템플릿 등의 체크리스트 마련 및 추적

2. 대상 회사의 위험 요소를 포함한 심층 실사 및 평가 수행

- IT 거버넌스, 운영, 비즈니스 연속성, 물리적 보안 및 전반적인 위험 상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상 회사의 사이버 위험을 총체적으로 검토함
- 위험 평가는 문서 및 시스템 검토와 같은 오프라인 분석과 더불어, 기업 환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포함함

3.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보안 위험 해결의 우선순위 설정

- 위험의 우선순위는 계약 체결 전, 거래 발표 전, 또는 거래 완료 전후에 해결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경영진과 사이버 위험 전문가 간의 신중한 조율이 필요함

4. 사전에 식별된 사이버 위험을 파악하여 원활한 거래 실행 촉진

-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자와 제 3자가 온보딩을 위해 기술, 네트워크 아키텍처, 보안 시스템, 계정 및 접근 관리와 관련된 통합 권장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5. ERP 시스템의 규정 준수 및 보안 일치 여부 확인 후 통합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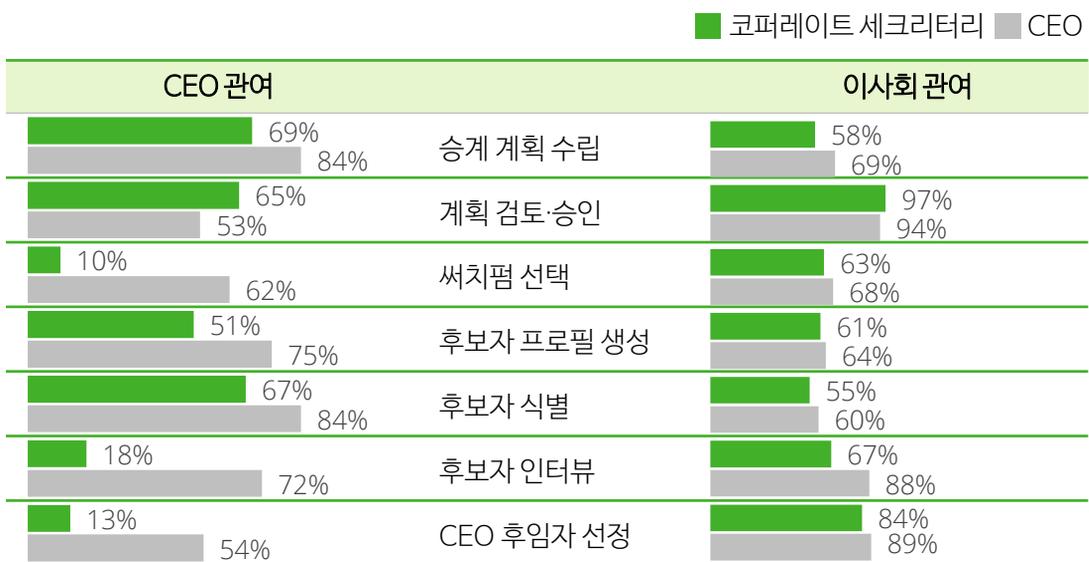
-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 진행
- 내부 사용자 디렉터리와 외부 공급업체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동화된 봇 계정 및 시스템 계정 식별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승계 전략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인식 차이

2024년 7월, On the Audit Board's Agenda, 「Variance in succession strategy and transition processes」

- 승계계획 관한 서베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CEO(91명)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67명) (Corporate Secretary)*의 응답 차이를 살펴봄
 -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법무, 이사회 지원, 거버넌스 관리, 주주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관리직
- 승계 전략 및 전환 프로세스의 특정 요소에 대해 경영진-이사회 간 어느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남
 - 최고경영자(94%)와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97%)는 모두 '승계계획의 검토·승인'에 이사회가 중요하게 관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CEO 관여에 대해서는 일치율이 낮게 나타남(CEO 53%,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65%)
 - 승계 프로세스의 모든 구성요소에서 'CEO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보다 크게 나타남
- 서베이 결과는 승계 전략과 전환의 영역에서 경영진-이사회 간 기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승계계획의 세부사항과 관계없이, 경영진-이사회 간 기대 일치 시 효과적인 승계 가능성 제고 가능
 - 조기퇴임 발생 시 사전에 기대 일치 사항을 공유하고 동일한 인식을 형성하면 추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와 CEO간의 인식 차이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7가지 고려사항

2024년 4월, THE WALL STREET JOURNAL, 「7 Considera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Finance」

- 최근 딜로이트 [웹캐스트](#)에서 재무 데이터 모델(FDM, Financial Data Model)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전환과제에 대해 논의함
 - * 조직의 재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로, 재무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보고를 위한 일관된 틀 제공



원문 다운로드

● 장애요인 식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금융 조직은 데이터 전환 일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절차가 불충분하면 데이터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움 • 비즈니스의 참여도 부족 역시 데이터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애요인 해결

구분	주요 내용
전문가 조직(CoE)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인력을 갖춘 CoE 구축시 감독을 제공하고 조직의 참여 촉진 가능
조직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을 위해서는 출발선부터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전환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사적 방법론 수립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
데이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은 문서화 및 보고 표준이 포함된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공통정보모델을 통해 재무데이터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됨
통제를 고려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및 자동화 구현을 설계하면 혁신과 조직의 성장을 리스크 및 내부감사 역량과 감사 준비 정도에 맞춰 조정 가능
구조화된 자동화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모델을 명확하게 정의 시 자동화 통제가 가능해지며 재사용 가능 개체와 코드를 여러 부서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여 일관된 자동화 구현 가능
역할과 책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
전문지식을 활용한 변화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확립은 전환의 변화관리와 직원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유용함

*Center of Excellence: 조직 내 새로운 역량을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의 전문가 집단

**Common Information Model: 비즈니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자원정보 환경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인 모델로, 플랫폼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기술 중립적으로 자원관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

혁신을 수용하라 : 잠재력을 이끄는 이사회 역할

2024년 6월, On the board's agenda, 「Embracing disruption: The board's role in championing innovation to capture potential」

- 현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사회는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과 전략적 리스크 평가를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진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사회는 경영진·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 하향식 혁신을 주도하여 조직이 혁신을 수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사회가 조직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가속화된 변화 속도	● 혁신으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구식화 될 수 있어 신기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는 위험하므로 이사회는 경영진의 혁신 추진속도를 촉구함
SI의 비즈니스 가치 창출	● SI 활용이 확대되면서 조직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가 재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이사회는 SI 영향력을 인식하고 경영진의 투자(M&A 등)를 감독함
기술의 영향을 받는 시장수요·고객 기대치	● 고객은 기업이 니즈를 예측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을 기대함에 따라 이사회는 경영진을 독려하여 고객중심전략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고객 기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쟁사,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유도함
적응형 혁신 조직 구조/인센티브	● '점진적 개선과 전환적 혁신'을 모두 고려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경영진의 혁신 관련 의사결정 및 자원할당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유용함
'개방형 혁신' 모델의 인기 상승	●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비용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의 인기가 상승하여 이사회는 경영진에 개방형 혁신 기회의 모색을 장려하고, 데이터 리스크 등의 리스크 완화를 독려함

- 경영진의 혁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에 가장 큰 위협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 최우선 혁신과제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내부투자자와 외부투자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 ● 경쟁사는 시장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직의 경쟁적 포지셔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점진적 개선 프로젝트'와 '전환적 혁신 프로젝트'를 어떤 조합으로 추진하는가? 투자의 성공율은 어느 정도이며, 조직은 충분히 과감한 투자를 하는가? ● 혁신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가? 향후 매출에서 신규 제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유형의 효율성 향상 또는 투자 수익률(ROI)을 달성할 수 있는가? ● 민첩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 혁신' 모델과 같은 선도적인 관행을 조직에 도입하고 있는가? ● 전략적으로 조정된 혁신 투자와 혁신 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경영진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거버넌스 기능을 갖추었는가?

신뢰를 선도하는 내부감사의 역할

2024년 3월, The Wall Street Journal, 「Internal Audit: Uniquely Positioned to Lead on Trust」

- 신뢰는 비즈니스 성과와 재무적인 성과에 측정 가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조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분석한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신뢰도가 낮은 기업보다 최대 400%까지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응답함
 - 신뢰최고책임자(chief trust officer)를 임명했거나 임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조직은 6.1%이었으며, 41.4%은 조직에서 신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거나 임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Michael Bondar는 신뢰 구축의 증진을 위해 담당자 또는 지정된 리더 그룹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감사가 조직의 신뢰를 진전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와 내부감사 기능은 업무 특성상 조직의 많은 부분과 상호 연결됨
 - Geoffrey Kovesdy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조직의 위험을 대비하여 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므로, 조직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조기에 개입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유용함
 - 내부감사는 신뢰 문제가 고객이나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따라서 CAE가 조직 내 신뢰 구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내부감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도달할 수 있음
- 내부감사를 통해 조직 내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원문 다운로드

구분	주요 내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진과 신뢰에 관해 논의하고 위험 평가 인터뷰 시 토론회의 장 마련
신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업계의 맥락에 맞게 신뢰를 정의하고, 내부감사 계획을 조직의 신뢰 프레임워크에 연계하여 내부감사 대상, 이유 및 방법에 신뢰의 분류 기준 적용
내부감사 업무에 신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업무에 신뢰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험평가 시 신뢰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 프레임워크를 현장 점검에 연계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2024.09.24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함

*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 대용량 데이터 검토, 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

- '23년 11월부터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함

- 주요 추진과제

1.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신뢰성 검증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지침, FAQ 등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2. 표준감사시간 반영 검토

- 디지털 감사 효과의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 및 반영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방안 등 검토

3. 회계법인가격차 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예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시 IT 교육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과정 확대·개편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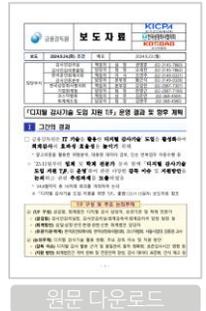
4. 감사 데이터 표준화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감사 데이터 표준화 등 추진

5.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유도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기업 대상 정기 설명회·세미나 등에서 디지털 감사 소개 및 디지털 감사 활용 사례 등 작성·배포
-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감사 활용 사항을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회계법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디지털 감사 활성화가 기대됨



2024년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4.09.11 (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년 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함
- 금번 공개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부채' 4건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공개시기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대상연도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상	
지적 유형	① 매출매출원가	2	6	3	4	4	5	12	4	40
	② 투자주식	4	-	4	3	4	5	6	4	30
	③ 재고·유형자산	2	2	3	3	-	1	5	7	23
	④ 기타자산부채	4	4	5	2	8	2	5	7	37
	⑤ 주식 미기재 등	1	2	3	3	11	2	9	7	38
지적사례 수(합계)	13	14	18	15	27	15	37	29	168	

●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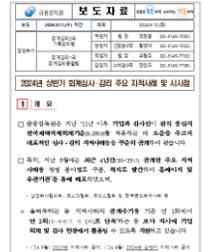
-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함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함

3.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함



원문 다운로드

II 규제 동향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2024.09.05 (목)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비금융회사 금융참여 확대 등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함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내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규제사각지대 해소, 금융시장 위험요인 효과적 통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과제

-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 마련

공통과제

-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질적규제)하고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양적규제)
- 임원 및 이사회에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업권별 과제

-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 중점 관리 추진
 - (카드사)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 강화
 - (보험사)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 확대
 - (은행) 은행권의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 점검 및 세부기준 보완 검토
 - (금융IT)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 점검
- '24년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각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임

The screenshot shows a press releas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dated September 5, 2024. The title is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The main content states that the FSS has established a 'T/F' (Task Force) for 'Operation Risk Management'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ssociations and experts. The purpose is to address emerging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from fintech and e-commerce, and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for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The document also mentions the goal of reducing regulatory blind spot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through measures like capital requirements and guidelines.

원문 다운로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2024.08.28 (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연구기관 주요 의견

1. 바람직한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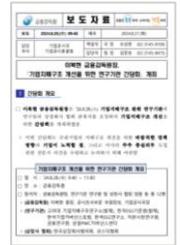
-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공시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노력할 점

- 자발적으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함
-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안건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CEO가 IR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보완 필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입장 등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금번 논의가 상장기업 밸류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일반회사 전체로 확대하기 보다 상장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기업 우려에 대한 일정한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자 보호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합병, 물적분할 등 사례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가 필요함
-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포괄적 의무사항 도입보다는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개별적 규정 제·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원문 다운로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2024.08.07 (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지원 및 '24.3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함
-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24.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 내역을 점검함
 - '24.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사(27,813개 안건) 대상



원문 다운로드

●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

1. 의결권 행사 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

- 점검 대상 274사 중 265사(96.7%)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 기재

2.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의 형식적 공시

- 121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51사(18.6%)만이 '23.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

3.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 미준수

- 의안명(246사, 89.8%)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의안 유형(233사, 85.0%)과 대상 법인과과의 관계(198사, 72.3%) 등 미기재

4. 의결권 불성실 행사

-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 불가능
-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으며, 114건(7.3%)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 행사

-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비상장기업 의견 조사

2024.07.29 (월) 대한상공회의소

-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이러한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가 발표됨
-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 대상 조사 결과,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이 46.4%에 달함
 -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또는 '철회(1.7%)'하겠다고 밝힘
 - 국내 비상장사 전체에 대한 전망으로는, 국내 비상장기업의 73%는 지금도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하며, 상법 개정시 국내 비상장기업의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기피할 것으로 내다봄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 기피 사유 (복수응답)
 - 응답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비상장사들이 상장을 지금보다 기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첫 손에 꼽았음
 - 이어서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등이 이유로 제시됨



원문 다운로드

구분		응답률
이사 책임 가중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확대	70.8%
경영 비효율 초래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40.4%
	경영 보수화 우려	37.3%
	이익상충시 주주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확대	24.2%
운용상 어려움	지배구조 등 분쟁 발생가능성 확대	28.0%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	16.1%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2024.07.16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지난 7월 16일,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함
-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됨
- 주요 논의 내용

1.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

-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 강조 및 국내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은행의 법규준수 유도방안

-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함을 제언

3. 은행권의 단순·반복 검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하여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
-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이행 강조

4. 부동산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
-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운영사례 공유

5.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

6.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발표

- 하나·기업·아이엠뱅크·국민 등 4개 은행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



원문 다운로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 지침(안) 마련

2024.07.12 (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함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내용

1.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
- 시범운영 희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 제출일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 할 수 있음

2.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실시 예정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예정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1. 위법행위 고려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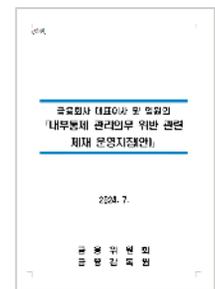
- 발생 경위 및 정도: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하였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
- 위법행위의 결과: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

2. 행위자 책임 고려 요소

- 예측 가능성: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결과 회피: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원문 다운로드



2024. 7.

금융위원회

별첨

책무구조도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령해설서 마련

2024.07.03 (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다음의 답변내용을 포함



1. 책무의 정의

- 책무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임

2. 책무의 배분과 범위

- 책무는 임원, 직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음
-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책무구조도 마련

- 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함
- 임원의 유고시 책무 누락방지를 위해 대체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함
- 동일 이사회에서 복수 임원의 책무 변경을 한 번에 의결 가능하며 책무구조도 변경*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의 변경,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4. 제재 및 지침

-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고,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받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중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및 상장사 지원 강화

2024.07.02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시행 및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함



원문 다운로드

1. 금융업 XBRL 주석 재무공시

- '25년도 반기보고서('25년 8월 제출, 12월 결산법인)부터 시행
- 금융업 상장법인(유가·코스닥) 중 개별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기준)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부터 우선 시행
- 이후, 2조원 이상('26년도 반기보고서) 및 2조원 미만('27년도 반기보고서) 금융업 상장법인 등으로 순차적 시행 예정

<표1>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 요약(12월 결산법인 예시)

구분	최초 적용시기(비금융업) - 기안내			최초 적용시기(금융업)		
	'23년도 사업보고서 (24년3월제출)	'24년도 사업보고서 (25년3월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6년3월제출)	'25년도 사업보고서 (25년8월제출)	'26년도 사업보고서 (26년8월제출)	'27년도 사업보고서 (27년8월제출)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최초적용그룹	두번째적용그룹	세번째적용그룹	두번째적용그룹	세번째적용그룹	네번째적용그룹
	2조원 이상 (기시행)	5천억원 이상 ~ 2조원 미만	5천억원 미만	10조원 이상	2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2조원 미만
	156사	340사	1,825사	27사	14사	93사

*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에 따라 대상회사는 매년 변동 가능('23년도 결산기준 예시)

2. 비금융업 상장법인 XBRL 주석 재무공시에 대한 평가

- 첫 XBRL 주석 공시('23년도 사업보고서/156사)의 경우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제출한 XBRL 주석 중 일부(42사, 27%)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어 정정공시 함
- 두 번째 XBRL 주석 공시('24년도 1분기 보고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실무교육도 제공한 결과, 오류 없이 모두 정상 제출됨
- 상장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계법인의 XBRL 품질관리 강화로 최초 적용그룹의 재무공시가 안착되는 것으로 평가됨

3. 상장사·회계법인 지원 강화 방안

- 상장사 재무공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업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며, 주요 상장사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XBRL 재무제표 작성 매뉴얼' 검토 및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등과의 1:1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XBRL 전문 교육을 지속 제공하여 회계법인의 자문 품질을 제고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6.26 (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지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

- 의결 주요 사항

1.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

- 책무구조도는 '책무기술서'(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와 '책무체계도'(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작성
-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배구조법상 사유에 더해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

2.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직원 추가

- 기존에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규정(지배구조법 시행령)
-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

3.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 추가

-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함
- 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4.7.3.에 시행될 예정임



II 규제 동향

24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 67개국 중 20위

2024.06.18 (화) 기획재정부

-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함
 - 한국은 전년 대비 8단계 상승하여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함
 - 국가경쟁력 평가 4대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33위에서 23위로 대폭 상승함



<표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순위	28위	23위	23위	27위	28위	20위
기업효율성 분야	34위	28위	27위	33위	33위	23위
경제성과 분야	27위	27위	18위	22위	14위	16위
정부효율성 분야	31위	28위	34위	36위	38위	39위
인프라 분야	20위	16위	17위	16위	16위	11위

- '기업효율성' 분야의 주요 평가항목인 '생산성'(41→33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노동시장'(39→31위) 및 '태도·가치'(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함

<표2> 기업효율성 분야 주요 평가항목 순위

구분	경영관행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태도·가치
'19년	47	38	36	34	25
'20년	36	38	28	34	15
'21년	30	31	37	23	21
'22년	38	36	42	23	23
'23년	35	41	39	36	18
'24년	28	33	31	29	11

-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노력의 긍정적 성과를 확인함
 - 기업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경영관행, 태도·가치)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됨
 - 앞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계획함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4.06.14 (금)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년부터 시행될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실무작업반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4.6.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할 전망
- IFRS 18 도입 연착륙 지원방안



구분	내용
중간합계 관련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 중간합계 (subtotal)를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 중간합계의 합리적인 명칭을 기업·회계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예정
안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상 혼란이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나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 • 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 • 세미나, 포럼, 실무간담회, 질의회신 전담팀 및 전용 웹사이트 등 운영 예정
영향 분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8의 손익계산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추진 예정 • IFRS 18 적용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회사별·산업별(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금융업 등) 영향을 분석할 계획
규제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 향후 계획으로,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반영한 K-IFRS 제1118호를 마련하고, '25년 중 개정하여 '2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 적용과정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일정기간 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ACGA '밸류업 출범은 긍정적...효과는 미지수' [스트레이트 뉴스]
- 이복현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밸류업에 걸림돌 된다' [경향신문]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입법 멈춰야'...국회·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배구조 족쇄법' 나온다 [한국경제]
- '상법 개정' 전에 바꾸자...재계 지배구조 개편 불 지폈다 [이뉴스투데이]
- 쪼개고 합치고...지배구조 개편 불 지피는 유통가 [이코노믹데일리]
- 주요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7.3%P 하락...'집중투표제 도입' 4.2%뿐 [경향신문]
- '거수기' 이사회에 메스...은행 지배구조 개편 속도 낸다 [조선비즈]
- 제22대 국회 운영 전망...'ESG-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이로운넷]

이사회·감사위원회



- '잇단 횡령 막자' 은행권, 내부통제委 꾸리고 책무구조도 도입 속도 [조선비즈]
- 은행권, 이사회 징계권·은행판 수심위 설치 검토 [해럴드경제]
- IM증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조선일보]
- 한미그룹 3인 연합, 이사회 확대 추진...임시주총 소집 청구 [연합뉴스]
- 정상혁 신한은행장, 해외법인 이사회에 내부통제 강조 [뉴시스]
- 이준수 부원장 '내부통제 위험관리, 은행 이사회 역할 중요' [딜사이트]
- 상장사 이사회 '밸류업 관련 이사회 참여 수준은 기업이 결정해야' [조선비즈]
- 이사회 '성 다양성' 의무화...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만 짝꿍 늘어 [한겨레]
- 상장사 이사회 '밸류업 관련 이사회 참여 수준은 기업이 결정해야' [조선비즈]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일본계 기업 대상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뉴시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7호' 발간 [조세일보]
- 딜로이트컨설팅, 'AI 혁신 바이블' 한국어판 출간 [아시아경제]
- 사외이사 운영 지원...한국 딜로이트 그룹, 헤드헌팅 전문기업과 MOU [NATE]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M&A 분야 ESG 동향 서베이' 리포트 발행 [매일안전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74%, 인수평가 때 ESG 성과 검토' [아시아 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6호' 발간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보고서 발간 [조세일보]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금융위 '고파스 가상자산 상장보고서 공개 바람직...투명성 확보 자율 정착 기대' [알파경제]
- 좀비기업 91개...상폐 절차·심사 단축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 최윤열 신임 한공회장 '기업 밸류업에는 회계투명성이 더 중요' [뉴시스]
- 한국세무사회, 7월부터 복식부기 전면 시행...'회계 투명성 제고' [국세신문]
-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될 것...투명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방지



- 작년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 154건...30% 늘어 [연합뉴스]
- 금융당국, 자본시장 부정행위 제재 강화...'불공정거래시 10년간 금융투자임원선임 제한' [뉴스웨이]
- 시세조종 등 부정행위 의심되면 계좌 동결...당국, 제재 강화 속도 [서울경제]
- 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연합뉴스]
- 기업들 '영업비밀 유출 막을 최선 수단은 강한 처벌' [뉴시스]
- 대법원 '알려진 정보라도 유기적 조합했다면 영업비밀' [조선일보]

규제동향



- 금감원,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확대 필요' [이뉴스투데이]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도 규제 추진 [한국경제]
- 깜깜이 M&A 사라진다...대주주만 알던 이사회 정보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 금감원,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내부통제 역량 강화 주문' [대한경제]
-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제출 시 금융사 제재 한시적 면제' [한겨레]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8계단 상승 [MBC 뉴스]
-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표 [법률신문]

M&A



- 인수금융 금리 뚝...M&A시장의 부활 [한국경제]
- 'M&A시장 연말부터 불 붙는다...금융사, 적극 참여해야' [이투데이]
- 몸집 키우는 제약·바이오, 해외서 M&A 활기 [조선비즈]
- 지배주주만 배려한 M&A,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이코리아]
- 기업 M&A, 정부협조시 결합심사 기간 단축...20일내 의견서 작성 [뉴스1]
- 알짜경영 대명사 메리츠화재의 M&A 시장 참전... '진정성이 성패 가른다' [산업경제]
- 주연급 없었던 M&A, 하반기엔 조 단위 빅딜 터지나 [이데일리]
- M&A 이후 시너지 효과 정량평가해서 공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매일경제]
- 상장사 절반 '이사 충실의무 확대되면 M&A 재검토 또는 취소' [KBS 뉴스]

1. 최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횡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횡령 관련 감리 지적사례를 제시함
- 첫번째 사례는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 조작' 건이며, 횡령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음 ¹⁾

구분	내용
횡령시	•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
결산시	• 甲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고, 결산 직후 매입채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
적발	• 동일한 수법으로 횡령을 수년 반복하다 누적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백

- 이 사례의 내부통제 취약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지적됨
 - (승인절차 미비) 회사는 상급자 승인없이 이체계좌 등록 및 전표입력이 가능하였고, 재무팀 직원들은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업무분리 및 교체의 부재) 甲과장은 재무팀에서 자금과 회계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전표 관리 등 권한도 부여받아 관련된 증빙을 손쉽게 조작하고, 혼자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여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미비점을 쉽게 파악함
 - (점검 부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장부상 예금 잔액과 은행 실제 잔고의 일치 여부를 매일 대사해야 하나 동 절차가 미수행됨
- 두번째 사례는 '횡령액의 매출채권 위장' 건이며, 횡령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음 ²⁾

구분	내용
횡령시	• C사 경리팀 직원 丙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결산시	• 丙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여 횡령사실 은폐
적발	•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丙부장은 잠적하였고 회사는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인지

1), 2) 금융감독원,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2024.05.24

1. 최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계속)

- 회사는 직원 丙이 장기간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 상당액을 매출채권에 허위계상하였으므로, 관련 자산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점이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임³⁾
- 이 사례의 내부통제 취약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지적됨
 - (승인절차 미비)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인터넷뱅킹 신청 승인절차가 없고 용도·이체한도도 미확인됨
 - (업무분리 및 교체의 부재) 인터넷뱅킹용 OTP 및 공인인증서 사용권한을 분리하지 않아 丙부장이 OTP·공인인증서를 통해 차입으로 입금된 현금을 본인계좌로 통제절차 없이 송금함
 - (점검 부실) 재무담당이사·대표이사는 월별로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 예금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숫자만 확인하고 통장 실물 등 증빙을 확인하지 않아 횡령 적발에 실패함
 - (내부감사 부실) 감사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하고 실제로는 내부감사기능 부재
- 이와 같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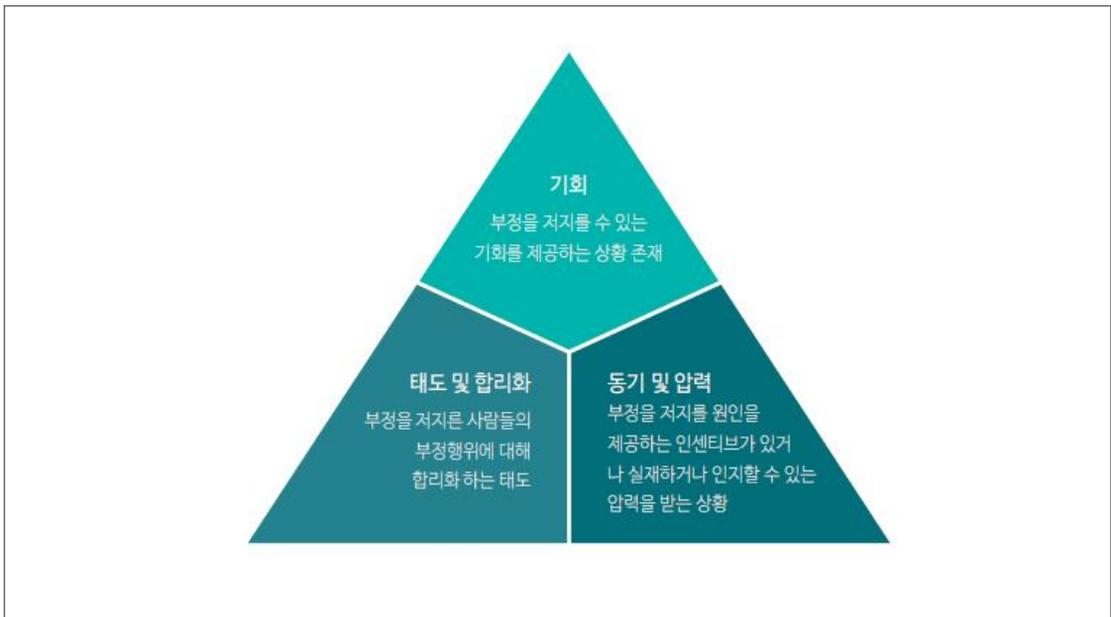
구분	내용
승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개설, 출금, 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필요 • 출금,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 마련
업무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업무와 회계업무를 분리하는 업무분장 필요 • 전표입력 시 상급자의 전표 승인절차 구축
업무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주기적 순환 및 교체
잔고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통장잔고 수시 점검 • 회사장부와 잔고증명서 및 펌뱅킹 화면 등 외부 증빙 대사
보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인감, OTP 등의 중요한 물품은 서로 다른 인원이 분리하여 보관 •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내부감사 임명, 내부통제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행

3) 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4.09

1. 최근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계속)

- 부정 삼각이론에 따르면 부정발생 3요소(기회, 동기, 합리화)가 동시에 충족될 때 부정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기회'의 발생을 제거함으로써 횡령을 예방할 수 있음

<그림1> 부정 삼각이론의 부정 발생 3요소 4)



4) Cressey, 「기업부정이론」, 1953

2. 국내 시총 상위 250위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율 차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국내 시총 상위 250위('23년 12월 말 기준)에 속한 기업들이 올해 7월말까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계조사 한 분석결과를 발표함¹⁾
- '24년 7월말 현재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대상의 73.2%에 해당하는 183개사로 집계됨
 - 이는 전년 동기 153개사 대비 30개 기업이 늘었으나, 올해 조사대상을 250개 기업으로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공시율은 지난해 76.5%대비 3.3%p가 감소함
- 자율공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은 글로벌 3대 ESG 정보공시기준(ISSB, ESRS, SEC 기후공시규칙) 확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공시도입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준비기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보임
- 지난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나, 의무화 시기와 대상기업 등은 아직 미정임²⁾
- 보고서 발간 현황(공시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은행·증권·카드 업종이 100% 공시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물류·무역업(94.1%), 엔터·전문서비스(91.7%), 식음료 및 자동차부품(81.8%) 업종이 높은 공시율을 보였음
- 반면 IT·반도체(72.7%), 전기·전자(70.0%), 화학·장업(66.7%), 철강·기계(61.5%), 전문기술(61.1%),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0.0%) 업종은 전체평균 공시율 73.2%를 하회하여 정보공개가 저조한 업종으로 분류됨
 - 이러한 경향은 업종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영향 등에 따라 공시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1) ESG행복경제연구소, 「국내 시총 250대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 분석결과 발표」, 2024.08.06

2)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2024.04.30

2. 국내 시총 상위 250위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율 차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계속)

<표 1> 업종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업종	대상 기업	발간 기업	공시율 (%)	업종	대상 기업	발간 기업	공시율 (%)
IT·반도체	22	16	72.7	자동차부품	11	9	81.8
건설·조선	12	12	100	전기·전자	20	14	70.0
금융지주	9	9	100	전문기술	18	11	61.1
물류·무역	17	16	94.1	제약·바이오	28	14	50.0
보험	6	6	100	비금융지주사	18	10	55.6
식음료	11	9	81.8	철강·기계	13	8	61.5
엔터·전문서비스	12	11	91.7	화학·장업	45	30	66.7
은행·증권·카드	8	8	100	전체	250	183	73.2

- 현재 국내의 경우 기업 보고 및 공시대상인 사업보고서(재무제표 포함)는 3월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5월말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공표시기는 환경부의 탄소배출량 인증(5~7월) 등으로 대부분 6월과 7월에 집중되고, 8월 이후에도 공시가 이어지는 실정임
- ESG 공시는 기업의 자율 영역이었지만, 글로벌 ESG 정보공시 확정으로 표준화와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기반과 의무화 동향을 감안할 때 기업의 실제 준비기간이 촉박해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국내외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성료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입니다.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
-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00 ~ 15:00
- 장소: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아잘레아스 (7F)

[▶ 프로그램 소개영상](#)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10:00-10: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대표
10:05-10:25	참석자 인사	
10:20-10:50	Keynote Speech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0:50-11:00	Break Time	
11:00-12:00	I 내부통제 최신 동향 및 시사점	
11:00-11:40	I-1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11:40-12:00	I-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12:00-13:20	오찬	
13:20-14:00	II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동 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00-14:20	Break Time	
14:20-15:00	III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컨설팅부문 (AI&DATA) 상무
15:00	Closing Remarks & Wrap-up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금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이슈와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간 심도있는 의견 교환 및 차별화된 네트워킹이 이루어짐
-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방안,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을 다뤘음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성료 (계속)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입니다.

Keynote Speech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프로그램 소개 영상

- ▶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기업가치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함

Session I -1.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 ▶ 강화되는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동향과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준비할 사항 및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유의사항을 제언함

Session I -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 ▶ 종속기업의 경우 자금 관련 통제 미비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연결실체 관점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 자금사고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RightHouse)'를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감리 지적사례를 기반으로 한 적용 예시를 선보였음

Session II.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논의 배경 및 제안 이유를 설명함
- ▶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손해회복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언급하고, 상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함

Session III.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 및 빅데이터의 최신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 (AI&DATA) 상무

- ▶ 업종별 디지털시 성숙도 수준의 비교를 통해 기술 적용시 업종에 맞춘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도입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 딜로이트 글로벌의 AI 적용 사례를 선보이며 AI 활용 전략을 제시함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사회 역할: COP29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피에르 클라마디유(Jean-Pierre Clamadieu) 회장(Engie SA), 사외이사(에어버스 SE/TE Connectivity Ltd) • 쉘라 머레이(Sheila Murray) 이사회 의장(Teck Resources), 이사(BCE Inc/Granite REIT), 파트너(Pradeep Philip) 겸 책임자(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 • 제니퍼 스타인만(Jennifer Steinmann) 리더 (딜로이트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와 시사점을 되짚어볼 예정임 • 주요 이사회는 배출량 감축,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임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신뢰 구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03일 (목) 오전 0: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얀 바비악(Jan Babiak) 사외이사(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몬트리올 은행) • 카린 돔(Karin Dohm) 사외이사/CFO(세코노미 AG, 호른바흐 바우마르크트 AG, 호른바흐 홀딩 AG) • 카린 스미스 이헤나초(Carine Smith Ihenacho) 최고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 • 젠 후이탄(Jenn-Hui Tan) 최고지속경영가능책임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신뢰, 보고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위시한 거버넌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렇게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위원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인지, 어느 주체에게 있는 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임 •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이자 저명한 패널리스트들이 감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역할, 조직 내 신뢰 구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이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임

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CEO와 이사회 의 역동성 강화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10일 (목) 오전 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가 거시적 차원의 문제, 기술 발전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와 CEO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음• 승계계획, 디지털 혁신 리더십, 협동적 의사결정 등 주요 주제를 탐구하며 CEO와 이사회 구성원 간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인사이트 공유 예정• 특히 전환기와 변화의 시기에 두 역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사회 거버넌스의 선도적인 사례 살펴볼 예정

신청하기

[웨비나] 지정학과 미국 선거: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0: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히라 나이트(Shahira Knight), Deloitte US 정책 및 대정부 관계 관리 책임자, 전 백악관 입법 업무 담당 국장• 모리스 옵스트펠드(Maurice Obstfeld),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명예 경제학 교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Admiral James Stavridis),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16대 최고사령관, 칼라일 그룹의 글로벌 업무 부사장·전무 이사,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사회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불확실한 선거 결과와 선거 결과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사회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논의 예정• 이사회는 어떻게 지정학적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의사 결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견해를 공유 예정

신청하기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외부강연: 2024 Corporate Citizen Forum



스케치영상보기

구분

내용

개요

- '인사이트코리아' 주최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4 기업시민포럼 '기업시민이 만드는 곳 거버넌스'에서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 이사회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함
- 국내 기업 지배구조 평가 항목 중 투자자 부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대체로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중하위권이라는 점이 아쉬우며, 특히 지배구조 제도, 상장 기업 등 하위권 항목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함
-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향후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비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 경영진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나아가 외부 감사인까지 포함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유기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결국 기업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밝힘
-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진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데이터 동향」 제 3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7월 9일,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 3호를 발간하였으며, 금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15개 핵심지표의 4개연도 준수율을 분석해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동향을 담음
- ▶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금융 부문 477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체 평균 준수율은 49.7%로, 전기대비 1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자산 규모별 핵심지표 준수율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62.9%로 전년 대비 5.6%p 하락했고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42.9%로 8.3%p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35.8%의 준수율을 보임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올해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전체 평균 준수율이 낮아지고, 자산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면서 준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함

다운로드



카드뉴스

영상뉴스

구분	목차
I.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론 ②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③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④ 핵심지표별 준수 현황 ⑤ 결언 ⑥ [별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1-'24)
II. 2024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②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③ 배당절차 개선 관련 추진 경과 ④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⑤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